

조명희의 시 연구 *

김은철 **

|| 차례 ||

- I. 서론
- II. 이원적 세계관
 - 1. 부정적 현실과 새나라의 동경
 - 2. 선과 악의 이원적 대립항
- III. 이상과 현실, 존재의 방식
 - 1. 원초적 순수세계의 동경
 - 2. 어머니와 대지의 이미지
 - 3. 존재의 방식과 방어기제
- IV. 결론

【국문초록】

조명희의 초기 시들은 상실감이 수반된 울분과 슬픔을 표현하였다. 거기에 대한 이상향으로 설정된 ‘새나라’는 관념 속에 존재하는데, 이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구체성의 결여로 나타난 결과였다. 그는 이 세계를 선과 악의 두 대립항으로 설정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세상을 악으로 판단한다. 그의 현실부정의 근거는 식민지 피지배 민족의 구체적 사·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혐오, 인간 세상에 대한 부정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도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그의 역사의식이나 현실의식이 투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새나라’라는 관념적 이상향은 순수의 세계로 구체화되는데, 그것은 절대악의 상대개념인 절대선의 세계로서, 때묻지 않은 원초적 순수세계이며, 아기·아침·눈 등의 이미지,

* 이 논문은 2018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영원한 모성으로서의 어머니로 나타난다. 모성으로서의 어머니는 대지와 동일시되며,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세계는 인간이 개입되기 이전의 절대선의 순수세계로서 공간적으로 무한한 포용력의 대지, 시간적으로 아침·봄이라는 구체성을 가지며, 새 생명으로서의 아기가 존재하는 세계를 뜻한다.

그가 설정한 양 극단의 대립항 사이에 화해는 불가능하고, 대립항 사이에서 좌절과 패배를 경험할 때 중간매체인 자아가 택한 방식은 자파와 공격이었다. 자아는 부정적 세계로부터 철저히 단절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악의 세계를 불비·벼락으로 공격하여 기존 세계를 파괴하고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순수를 꿈꾼다.

그의 시는 절대악과 절대선이라는 양 극단의 세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므로 식민지의 구체적 현실을 시로 담기는 어려웠다. 살아있는 구체적 현실은 양 극단 사이의 중간매체로 존재할 것인데, 거기에는 타협이 불가능하고 어느 한 쪽의 완전한 승패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두 대립항 사이에 중간적 존재인 현재적 삶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리얼리즘에 입각하여 현재적 삶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르인 소설 장르가 필요하였고, 그의 돌연한 소련 망명도 이 근거에서 가능하였다. 개체적 삶보다 보편적 삶, 현실적 삶보다 관념적 이상, 민족보다 계급혁명을 우위에 두었던 그는 세계를 전면 부정하여 해체하고 새나라를 꿈꾸는 소련의 혁명에서 그가 그렇게 갈망하던 원초적 순수세계를 기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조명희, 새나라, 아기, 어머니, 절대선, 절대악, 대립항, 순수세계, 방어기제, 자파, 공격, 망명

I. 서론

조명희(趙明熙)는 1894년 충북 진천 출생으로서¹⁾ 호를 ‘笛蘆, 蘆笛, 蘆

1) 그의 생사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다. 사망은 1938년 5월 11일로 확인되었지만 출생연도가 호적에는 1894년 6월 10일, 『조선문학개관』(박종원·류만, 사회과학원출판사, 1986.)에는 1892년, 유족들은 1894년 8월 10일, 1894년 7월 19일, ‘직업동맹원증’에는 1899년 등으로 나타나 명확하지 않다. 『포석 조명희 전집』을 비롯, 대개는

月, 木星, 抱石, 包石, 명희' 등으로 사용한 작가로, 한국 근대문학 초창기의 이른바 문제적 작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시, 희곡, 소설을 넘나든 그의 다양한 문학활동과 더불어 일본 유학, KAPF, 소련 망명, 망명지 문학활동, 간첩으로 몰려 총살을 당한 그의 특이한 일생과 연관되어 있다. 물론 거기에는 각 장르에 걸친 그의 문학적 업적이 문학사에서 운위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의 문학적 삶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으로는 집안이 몰락한 후 일생을 극한의 빈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동경 동양대학 동양철학과에 다니다가 중퇴한 것, 13세에 결혼 후 가정에는 애정이 없었다는 것, 유학 시절 희곡 「김영일의 사」(1921)로 호평을 받았고, 귀국 후 시집 『봄잔디밭위에』(1924)를 출간하였으며, 소설 「낙동강」(1927)으로 카프 문학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34세 되던 이듬해 돌연 소련으로 망명한 것 등이다. 망명 후 교사생활을 하며 황명희와 재혼, 작품활동을 하다가 일본 간첩 혐의로 1938년에 총살을 당하였고 1956년에 무혐의로 복권되었다. 그 후 1959년 소련에서 『포석 조명희 선집』²⁾이, 1995년에는 『포석 조명희 전집』³⁾이 동양일보사 출판국에서 발간되었다.

조명희가 본격적으로 문학을 접한 시기는 1914년(20세)부터 일본에 가기 전인 1919년(25세)까지로, 당대 시인들이 10대 후반이었음에 비하면 늦게 문학에 눈을 뜬 셈이다.⁴⁾ 1919년에 어렵게 동경의 동양대학에 유학

1894년 8월 10일을 그의 출생일로 보고 있다. 한편 노상래는 제반 상황을 점검하며 1910년설을 제기하였다. 1920년대 문학과 작가의 연령층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출생 연도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상래, 「조명희 연구 I」, 『어문학』 제53집, 한국어 문학회, 1992, pp.187-208.

2) 조명희 문학유산위원회, 『포석 조명희 선집』, 쓰런과학원 동방도서출판사, 1959. 이하 『선집』으로 부르기로 함.

3) 『포석 조명희 전집』, 동양일보사 출판국, 1995. 이하 『전집』으로 부르기로 함.

4) 근대 초기 시인들의 출생연도는 주요한과 홍사용이 1900년, 박영희·박종화·이상화가

을 가게 되었는데 이 유학 시기에 회곡 「김영일의 사」를 비롯, 시집에 실린 대부분의 시를 창작하였다. 시집 『봄잔디밭위에』는 1923년 김억의 『해파리의 노래』가 나온 이후 1924년에 많이 발간된 시집들 중 하나로 근대 시집발간 순서로는 2~3위에 해당한다.⁵⁾ 1924년은 이학인의 『무궁화』, 노자영의 『처녀의 화환』, 박종화의 『흑방비곡』, 변영로의 『조선의 마음』, 주요한의 『아름다운 새벽』 등 많은 시집이 발간된 해로, 조명희의 시집 발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학사에 기록될 만한 것이다. 따라서 조명희를 운위하는 자리에서 1920년대의 시적 상황은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1920년대 시인들은 서구문학의 수용, 외세의 침략, 식민지 현실, 새로 대두된 사회주의 사상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봉건질서와 서구문화와의 격차에서 오는 문화적 열등감과 갈등 속에서 불과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엄청난 문학적 변모를 경험하여야 했다. 따라서 그들이 줄곧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일관성 있는 작품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감상과 걱정 우위의 소위 퇴폐적·병적 낭만주의 분위기에서 김소월과 이상화가 관념과 현실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며 나름대로 개성적 성과를 이룬 것은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⁶⁾ 본고에서 조명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바로 이 시기에 엄청난 진폭을 가진 그의 문학세계가 시인 개인적으로, 또 문학사적으로 단연 주목되기 때문이다.

1901년이다. 조명희가 1894년생이라면 이들보다 6~7세가 많은 것으로, 이는 20세 전후의 나이에서는 큰 차이이다.

- 5) 이학인의 『무궁화』가 『봄잔디밭위에』보다 5일 먼저 발간되었으나 바로 압수되어 그 다음 해에 발간되었으므로 사실상 『봄잔디밭위에』가 김억의 『해파리의 노래』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시집인 셈이다.
- 6) 두 시인이 관념과 현실을 유사하게 경험하고 서로 다른 도달점에 이르면서도 높은 시적 경지를 이룬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김은철, 「김소월과 이상화의 비교연구」, 『비교한국학』 제3집, 국제비교한국학회, 1997, pp.173-191 참조.

본고에서는 그의 초기⁷⁾의 시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명희 문학의 근간을 살피고자 한다. 여기에는 문학에 종사하는 작가는 일관되게 구축한 자신만의 세계관의 틀이 있고, 일생을 통하여 작품들이 변모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상호 인과관계망 속에 있다는 당연한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 특히 한국 근대문학에서 작가들의 세계관의 변모는 그 자체가 곧 식민지 현실의 역사적 반영이면서 거대한 문학사의 흐름으로서, 한국문학에 내재된 제반 지속적 요인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⁸⁾

지금까지 조명희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는 제법 이루어졌으나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이는 1988년 해금초치 이후 『선집』이 유입된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가능하였다는 점, 그의 문학 장르가 희곡·시·소설 등으로 다양하여 논의의 초점이 분산된 점, 갑작스런 망명과 망명 이후의 작품활동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집』과 『전집』으로 대체적인 문학적 평가는 가능하여졌으나 구 소련에서 쓴 작품들이 많이 멸실되고 전하지 않아 그의 문학세계 전모를 밝히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의 문학적 평가는 대체로 대표작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여 카프문학의 성과 측면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주로 소설에서의 현실 인식을 다룬 것이 많다.⁹⁾ 현대에 들어 조명희의 문학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이강옥에

7) 본고에서는 망명 이전의 시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의 문학 시기를 세분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초기’란 습작기와 시를 발표하는 1923년, 시집을 낸 1924년을 거쳐 망명 이전인 1926년까지를 지칭한다.

8) 이를 신라 향가의 4구체와 10구체,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세계관과 연관시켜 한국시가의 지속과 변모라는 통시적 관점에서 보고자 한 것은 필자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다. 김은철, 『한국 근대시 연구』, 국학자료원, 2000.

9) 「낙동강」 발표 후 김기진, 박영희, 조중곤, 윤기정 등에 의해 제기된 카프 관련 논의는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 관한 논의로는 김시태, 「조명희 소설 연구」, 신춘호, 「조명희 소설론」, 변경화, 「포석 조명희의 ‘낙동강」, 이화진, 「조명희의 ‘낙동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강옥은 조명희의 초기의 회곡과 시, 소설, 망명 후의 문학을 다루면서 그의 생애 궤적과 장르 선택이 상호 대응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후 김재홍에 의해 대체적인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다.¹¹⁾ 시에 대한 논의는 우찬제와 박혜경, 백운복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우찬제는 시에 나타나는 각 요소들을 분석하면서 그의 시의 변모 양상이 1920년대 시단의 전체적인 변화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았고¹²⁾, 박혜경은 그의 시가 구체적 실체가 없이 감상적이고 추상적이라며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다.¹³⁾ 한편 백운복은 그의 시세계가 이원적 시정신의 갈등과 괴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원형에의 동경과 환상적 자연체험, 현실에의 탄식과 떠도는 자아의 형상이라고 결론지었다.¹⁴⁾ 한편 오성호는 그의 장르전환 과정을 중심으로 논하면서 그의 장르전환이 진지한 지적 역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¹⁵⁾

본고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참고로 하면서 그의 문학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를 대상으로 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의 양상과 그 극복방안으로 구축된 이상향을 분석하고 그것이 그의 문학적 변모, 나아가서는 인생행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는 그의 문학적 배

강'과 그 사상적 기반, 김성수, 「목적의식론과 낙동강, 장양수, 「조명희 단편 '낙동강'의 프로문학적 성격」 등이 있다.

- 10) 이강옥, 「조명희의 작품 세계와 그 변모 과정」, 김윤식·정호웅 편, 『한국 근대리얼리즘 작가 연구』, 문학과지성사, 1988.
- 11) 김재홍, 「프로문학의 선구, 실종 문인 조명희」, 『한국현대시인연구(2)』, 일지사, 2007.
- 12) 우찬제, 「낭만적 상실과 현실적 반항의 시학」, 『민족과 문학』 창간호, 민족과 문학사, 1989, 겨울.
- 13) 박혜경, 「조명희론」, 홍기삼·김시태 편, 『해금문학론』, 미리내, 1991.
- 14) 백운복, 「조명희의 시 연구」, 『시의 이론과 비평』, 태학사, 1997.
- 15) 오성호, 「조명희 시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논문집』 제15집, 순천대학교, 1996, pp147-162.

경과 궤적을 이해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1920년대 초기 시인들의 정신적 배경을 설명하는 데도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시 작품은 망명 이전의 것들로서, 『봄잔디밭위에』에 수록된 43편과 거기에 수록되지 않은 『전집』의 11편이며, 필요에 따라 그의 수필 및 소설도 참고로 인용하기로 한다.

Ⅱ. 이원적 세계관

1. 부정적 현실과 새나라의 동경

시집 『봄잔디밭위에』는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923년 봄에 귀국 후 시집을 내기까지 약 1년간 쓴 13편이 ‘봄잔디밭위에’에, 유학 시절인 1923년 이전에 쓴 것들로 ‘蘆水哀音’에 8편, ‘어둠의 춤’에 22편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그의 유학 시절의 작품들은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과 함께 방황하는 시적 자아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그辱되고도 쓰린 사랑의 微光을 차지랴고
너를 만나랴고
그 흠하고도 흠한 길을
홀홀히 달녀 지쳐(疲困) 왔다.

저녁 西風 窸窣시 부러오고
벧장이 우는 밤
나는 누구를 차저
어두운 별판에 허매이노.

- 「누구를 차저」 전 4연 중 2,4연 -

아아 지금 이곳은
 쇠하여 가는 가을이
 灰色 안개의 옷을 입고
 薄暮의 빛을 바다
 가만히 숲이 노래하는
 江물이 흐르며
 싸르르한 바람이
 거처를 기슭을 스쳐 지날 제

- 「孤獨의 가을」 일부 -

이 시기의 시들은 대부분이 ‘가을, 슬픔, 사라지고, 쓰러지고, 험하고, 피곤하고, 해매는’ 하강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감정의 과잉, 한자어의 남용, 근거 없는 울분과 좌절 등의 모습은 1920년대 초기 우리 시단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당대 시인들의 현실 인식의 기반은 식민지 치하 정치적·사회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인습과 문화적 후진성의 열등감에 근거하고 있었고,¹⁶⁾ 그것이 꿈·밀실·동굴·죽음과 같은 퇴행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서구 낭만주의와 맥을 같이하고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명희의 시들은 그러한 20년대 초기의 우리 문단의 보편적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시 어디에도 이국정조(exoticism)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은 중국 상해로 망명 간 주요한의 경우¹⁷⁾와 크게 대비되고, 이상화가 느낀 식민지배국 일본에 대비되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¹⁸⁾도 나타나지 않는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가 있지만, 그것도 일반적

16) 김은철, 『한국 근대시 연구』, 국학자료원, 2000, pp.68-69.

17) ‘파란 선 두른 옷옷은 불기에 다얏고/소매는 짧아 회고 가느른 팔을 드러내며/연홍색 바지에 치마는 넓지 안엇다/썰크 스톡킹 사이로 희미한 발목의 曲線/눈을 魅하는 살빛/가느른 손가락에 감긴 손수건은 무릅 우에!’ (『上海이야기』 중 「支那少女」 일부)

18) ‘아 엽게 잘 사는 ‘동경’의 밝은 옷음속을 원테로 헤매나/내 눈은 어둠 속에서 별과

향수의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나의 故郷이 저기 저 혼 구름 너머이면
 새의 나래 비려 가련마는
 누른 쌍 위에 무거운 다리 움직이며
 蒼空을 바라보아 휘파람 치다.

孤寂한 사람아 詩人아
 하늘 꽃 灰色 구름의 나라
 일흠도 모르는 새나라 차지려
 멀고 먼 蒼空의 길 저문 바람에
 외로운 形影 번득이여 나라가는 그 새와 갖치
 슬픈 소리 바람결에 부쳐 보내며
 압흔 거름 푸른 꿈길 속에
 永遠의 빛을 차차 가다. - 「나의 故郷이」 전 4연 중 1,4연 -

이 시에서 나타난 정서는 타향에서 느끼는 막연한 향수 이상의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새나라’라는 이상향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이국이라는 것도, 식민지배에 대한 구체적 현실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이 작품은 20년대 시인들이 퇴행심리의 기제로 향수에 젖어 고향을 그리워하던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가 추구하는 이상향은 추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거기에
 알 수 없는 神祕의 金字塔이
 혼 구름 위에 눕혀 소사 - 「孤獨의 가을」 일부 -

함께 우는 흐린 호룡불을 녀덱시 볼 뿐이다.’ (「도-교-에서」 일부)

내 血脈을 통하야 내 全身을 통하야
 그 마음의 奧宮으로부터
 까닭 모르는 寂悅의 바람이 부러오다
 그는 까닭 모르는 生命의 悅波
 智慧와 感覺을 찌난 靈魂의 微笑 - 「不思議의 生命의 微笑」 일부 -

부정적 현실에 대하여 그가 지향하는 세계는 ‘새나라’, ‘신비의 금자탑’, ‘생명의 열과’ 등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름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까닭 모르는’ 것들로 설정되어 있다.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상대적 의미에서 설정되는 것이 이상향일 것인데, 그 이상향의 까닭도 모른다는 것은 곧 부정적 현실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후에 밝혀지겠지만 그의 시에 등장하는 현실은 현재적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기준으로 작용하는 보편적 세계관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그가 지향하는 이상세계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영원의 빛’의 ‘새나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가 구축한 새나라는 구체적 실체와 내용이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새나라에 대한 동경은 희곡 「김영일의 사」에서도 ‘계급적 투쟁을 통해 건설하려는 구체적인 사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¹⁹⁾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문학 초기에는 민족의식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희박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령 소설 「낙동강」에서 ‘우리가 우리 계급의 일을 하기 위하여는 중국에 가서 해도 좋고 인도에 가서 해도 좋고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서 해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은 우리 경우에는 여기 있어서 일하는 편이 가장 편리하다.’²⁰⁾라는 박성운의 말

19) 정덕준, 「포석 조명희의 생애와 문학」, 『조명희』, 새미, 1999, p.25.

20) 「낙동강」, 『선집』, pp.311-312.

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계급투쟁이며 민족의 독립투쟁은 그 과정일 뿐이라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이 이러한 의식은 소설 「아들의 마음」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²¹⁾ 조명희에게 계급투쟁은 세계 무산계급 해방을 위한 상위의 개념이며 민족해방은 세계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하위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새나라는 구체성이 결여된, 관념 속에서 막연한 구호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부정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인 현실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하였으므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이상향도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조명희의 시에 나타난 현실은 당대 식민지배하에 있는 민족 또는 역사적 개인이 경험하는 구체적 실체와는 거리가 먼,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선과 악의 이원적 대립항

현실에 대한 인식이 식민지배하의 구체적 현실이 아니라 막연한 상실감에서 출발하는 현상은 20년대 초기의 시인들에게 공통적인 것인데, 특히 조명희는 이 세계를 선과 악이라는 두 대립항으로 보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이원화시켜서 인식한다.

사람에게 만일 善惡의 눈이 읊엇던들
서로서로 절하고 祝賀하올 것을.....
보라 저 쌍 위에 웃독히 쓴 人間像을. - 「人間肖像讚」 일부 -

오오 이 더러운 몸을 엇지 하여야 조호라

21) '나도 무장을 하고 싸우자. 민족해방을 위하여 계급해방을 위하여...너는 중국에서 나는 조선에서...' 『선집』, p.383.

이 더러운 피를 엷다가 흘녀야 조호라

- 「無題」 일부 -

어둠의 검! 어둠의 검!

그대에게야 설마 이 말세 인간의 더러운 냄새 같은 호풍선스러운 말이
있사오리까

말이 있사오리까? - 「어둠의 검'에게 바치는 서곡(序曲)」 1연 -

세상에서 富를 求하느니

가을의 썩은 落葉을 좇지

그것이 狡猾의 報酬로 온다더라.

세상에서 名譽를 求하느니

沙漠 길 위에 모래탑을 쌓지

그것이 阿諛의 報酬로 온다더라. - 「별 밋호로」 전 5연 중 1,2연 -

조명희는 세상을 선과 악으로 양분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세상을 악으로 판단한다. 인간의 세계는 교활과 아첨, 허풍의 세계이며, 더러운 피가 흐르는 인간들은 악으로 치장하고 우뚝 서 있다. 따라서 그에게 인간과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나아가서 세상 자체는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인간에 대한 환멸과 혐오,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의 시와 수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다음의 예에서 우리는 그 부정의 근거를 유추할 수 있다.

어느 술座席 𪎐혜

엽혜 안진 동무들이

엇지 그리 되지 안코 밋던지

주먹을 쥐고 이러스며

「필리스틴」의 세상 더러운 세상!

이 되지 않은 俗衆! 하고

싸호기까지 하였다.

- 「스핑크스의 悲哀」 일부 -

손잡던 동무는 도라서 가고

세상은 찬 바람이 휘모라칠 때

그 때 내 靈은 얼마나 저러 울었스랴

처음에는 驚訝 그 다음에는 恐怖 - 「내 靈魂의 한쪽 紀行」 일부 -

그러나 내게는 幻滅이 닥쳤다. 同志에 對한 幻滅이다. 人間에 對한 不信任案이다. 唯心論者들이 依例히 하는 말맛이나 社會改造보다도 人心改造가 더 急하다고 나도 불리지졌다...(중략)...그리하여 나는 反動의 길을 짓게 되었다. 사람이라면 辱하고 咀呪만 하라 하였다.²²⁾

젊은 시절 조명희는 자신의 사상적 진로를 두고 항상 고민하고 있었다. ‘유고’의 인도적 정신이 사상과 감정을 지배하였다고도 하고,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는 가슴이 후끈하기도 하였으며²³⁾, 노동과 문학, 데카단니즘과 종교적 신비주의, 타고르의 신낭만주의와 고리키의 신현실주의 등의 갈림길에서 갈등하였다.²⁴⁾ 그는 당시 유행하던 사회사상에 잠시 심취하였지만 ‘根據있는 思想的 背景을 가졌던 것도 안이오, 生活環境으로부터 그런 意識이 생긴 것도 안이오, 다만 淺薄하고 漫然한 人道主義的 傾向으로부터 나왔던 것임으로 그 情熱이 곧 살어지고 말았었다.’²⁵⁾고 진술하고 있다. 즉 명확하게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지 못 하던 때에, 모임에 들어가

22) 조명희, 「生活記錄의 斷片」, 『조선지광』 65호, 1927. 3.

23) 조명희, 「늦겨본 일 몇가지」, 『개벽』 70호, 1926. 6.

24) 이 시기의 삶의 흔적은 「生活記錄의 斷片」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25) 조명희, 「늦겨본 일 몇가지」, 『개벽』 70호, 1926. 6.

막연한 기분에만 놀게 되었다는 것이다.

별로 의식 없이 막연한 ‘기분’에만 나가던 모임에서 그는 인간에 대한 환멸과 불신, 저주, 허무와 절망을 경험한다. 거기에서 시인은 경아와 공포를 느끼고 사회개조보다 인심의 개조가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의 인간혐오와 세상에 대한 불신은 급기야 존재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를 부정하는 곳으로 나아간다.

누가 너에게 人間이란 일흠을 붓쳤나뇨

그런 侮辱의 말을.....

- 「어린 아기」 일부 -

兄아 아오야 울지 마러라 울지 마러라

두리전대 이것이 永遠일가 하노라

永遠의 矛盾일가 하노라

永遠의 矛盾!

永遠의 矛盾!

오오 이것이 웬일이냐

이것이 무엇이나

이 사람이 왜 생겨났슬가

이 宇宙가 왜 생겨났슬가

- 「永遠의 哀訴」 전 6연 중 4,5연 -

때문지 않은 순수의 세계를 대신하는 어린이와 원숭이 새끼²⁶⁾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욕이며 사람과 우주가 생겨난 그 자체가 영원의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시는 현실세계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근거로 하고 있

26) ‘원숭이가 색기를 나앗습니다/원숭이가 색기를 귀여합니다/그러나 나는/싫어합니다 /“너는 왜, 그런 侮辱의 탈을 쓰고 또 나서.....”하고.’ (「원숭이가 색기를 나앗습니다」 전 3연 중 2연)

는데, 문제는 그 부정의 근거가 구체적 사·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혐오, 인간 세상의 부정이라는 보편적·인도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식민지하의 구체적 현실보다는 인간혐오, 세상에 대한 저주를 현실부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그의 세계관이 역사의식이나 당대 현실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조명희의 시세계는 20년대 시인들이 20세 전후의 젊은 혈기와 역사적 소임이 소거된 중산층 지식인들이었다는 것, 미성숙된 세계관에서 시세계가 구축되었다는 것, 투철하지 못한 현실 인식하에서 절망과 좌절을 느끼고는 ‘그들이 지향하는 긍정적인 세계를 노래하기보다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과 이로 인한 절망을 노래’²⁷⁾한 것과 다르지 않다.

구체적 현실이 배제된 상태에서 방황하는 시적 자아의 인간에 대한 실망은 인간혐오, 세상에 대한 절망, 나아가 인간과 우주의 부정으로까지 심화되었으며, 여기에서 인간의 도덕적·윤리적 문제에 기반한 선과 악의 이원적 대립향이 설정되었다. 거기에는 인류의 보편적 도덕과 윤리라는 가치 기준이 작동할 뿐, 식민지 현실이라는 현재적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Ⅲ. 이상과 현실, 존재의 방식

1. 원초적 순수세계의 동경

부정적 현실에 대하여 상대적 개념으로 설정된 ‘새나라’라는 관념적 구

27) 김홍규, 「1920년대 초기시의 낭만적 상상력과 그 역사적 성격」, 『문학과 역사적 인간』, 창작과 비평사, 1980, p.222.

호는 좀 더 구체화되면서 절대 순수의 세계로 모습을 나타낸다. 그의 현실 부정이 인간혐오, 악의 근원인 인간 세상의 부정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상대적 개념은 자연적으로 인간 존재에서 연유하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세계는 악의 근원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은 태초의 세계, 절대선의 세계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기에서 때 묻지 않은 순수세계, 절대선의 세계는 악의 순실의 세계로 표상된다.

純實이 읊는 이 나라에
 앓픔과 눈물이 어대 잇스며
 눈물이 읊는 이 백성에게
 사랑과 義가 어대 잇스랴.

- 「불비를 주소서」 일부 -

그는 이 세상은 순실하지 않으므로 아픔과 눈물이 없고 사랑과 의도 없다고 말한다. 이 시의 ‘이 나라’ ‘이 백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당대 식민지 조선과 조선의 백성일 것인데도, 그 실체적 현실은 전면 부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순실·순수가 없다면 국가와 민족, 백성도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표현된 인간의 부정적인 면모는 ‘어떤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과의 구조적 역학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 이라기보다는 선악과 같은 인간 자체의 내면적인 속성에 의한 것으로 인식 된다.’²⁸⁾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그의 현실 인식의 기반이 보편적이고도 추상적인 것에 있다는 것, 민족이나 국가라는 실체보다는 관념 속의 이상이 절대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8) 박혜경, 「조명희론」, 홍기삼·김시태 편, 『해금문학론』, 미리내, 1991. p.359.

이러한 배경에서 그가 지향하는 세계는 인간이 배제된 원초적 순수세계로 나타난다. 세계는 인간이 개입됨으로써 추악해진 것이므로 그것이 원상 회복되려면 세계는 태초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태초의 가장 순수한 모습은 아기, 아침, 봄, 눈 등의 이미지로 구현된다.

오오 어린 아기여 人間 以上の 아달이여!

너는 人間이 아니다

누가 너에게 人間이란 일흠을 붓쳤나뇨

그런 侮辱의 말을.....

너는 善惡을 超越한 宇宙 生命의 顯像이다

너는 모든 아름다운 것보다 아름다운 이다. - 「어린 아기」 일부

철 모르는 어린 아기

人生의 첫 봄

아질아질 타오르는 아지랑이

넘을넘을 듯한 비개인 江邊

황금의 비존으로 짜낸 내 靈의 野原 - 「내 靈魂의 한쪽 紀行」 일부 -

아기는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의 상태이므로 찬미의 대상이 된다. 아기는 모욕적인 인간 이상의 존재로서, 선악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의 우주의 현현이며, 비가 갠 강변과 같은 깨끗한 원시 상태의 처녀지이고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존재로 묘사된다. 더 나아가 아기는 ‘해의 나라에서 보낸’, ‘힘의 나라에서 보낸’ 귀엽고 신성한 존재이며, ‘神의 子’, 지구의 수호자로 인식되기도 한다.²⁹⁾ 그것은 곧 조명희가 순수의 세계를 절대선으로 인식

29) ‘보라 영원히 그 아기는/터지려는 지구의 심장을/부드러운 손으로 껴매어 주며/넘어

하고 인간세계의 치유도 곧 순수에서 가능함을 뜻한다.

아기가 찬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직 거짓과 악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상태이기 때문이다. 그의 시에 인간과 대비되어 등장하는 바둑이(개), 살모사, 소와 말, 돼지, 여우 등의 짐승들도 그들이 거짓과 위선이 없다는 의미에서 인간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바둑이는 거짓이 없나니라/그러나 이 몸쓸 인간에게는 거짓이 있나니’(「바둑이는 거짓이 없나니」) ‘동무여/우리가 만일 개(犬)이어던/개인 체하자/속이지 말고 개인 체하자!/그리고 쌍에 업드려 쌍을 할자’(「동무여」)라고 차라리 거짓이 없는 개가 되자고 말한다.

아침 개인 아침

집웅 집웅

가벼운 羅依 맑은 香氣

笑顏 오오 그 笑顏!

그래서 나래 벌린 大地는

새 아침을 맞는다. 聖하고 또 榮光스러운 아침을. - 「아침」 전문 -

순수상태의 시간적 대상은 아침과 봄이다.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며 봄은 사계절이 시작되는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루가 시작되는 건 아침은 가볍고 맑고 웃음이 흐르며, 대지는 날개를 벌려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는다. 결국 조명회가 추구하는 세계는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진 인간세계의 상대개념인 원초적인 순수세계이며, 그것이 아기, 비가 갠 강변, 첫봄, 아침 이미지 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려는 생명의 바퀴를/작은 팔로 받치고 서서/머나먼 나라의 길을/어여쁜 손으로 가리켜 주나니.’ (「어린 아기」 일부) 시 「어린 아기」는 두 편이 있다. 이 작품은 「개벽」 61호(1926.7.)에 실려 있는 것으로 1924.9.29일에 쓴 것이다.

2. 어머니와 대지의 이미지

순수세계를 표상하는 아기의 이미지와 더불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영원한 모성으로서의 어머니이다. 아기는 모성으로서의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나는 宇宙의 어머니로부터 나온 자식
올토다 그 어머니 가슴에 兀起한 한낱의 水泡 - 「分裂의 苦」 일부 -

어머니 좀 드리주세요
저 黃昏의 이약이를
숨 사이에 어둠이 엿보아 들고
개천 물소리는 더한층 가느라젓나이다
나무나무들도 다 祈禱를 드릴 재입니다.
어머니 좀 드리주세요
손잡고 귀 기우려 주세요
저 담 아래 밤나무에
아람 썩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썩'하고 썩으로 썩러집니다
宇宙가 새 아달 나왔다고 기별합니다
燈불을 가지고 오세요
새 손님 마지러 공손히 거러가십시다.

- 「驚異」 전문 -

여기에서 어머니는 순수세계의 상징인 아기와 조용하는 영원한 모성으로 형성된다. 아기는 ‘神의 子’(「어린 아기」)이며 나는 우주라는 어머니의 아들이다. 원초적 세계의 표상인 아기는 어머니의 가슴에 한낱 물방울로 존재하며 모성으로서의 어머니는 다시 신과 우주로 의미가 확대된다. 즉

어머니는 영원한 모성으로서 순수세계의 주재자가 되는 것이다. 그 순수세계에서는 아람 한 톨도 우주가 낳은 경이로운 생명의 탄생으로서, 황혼과 개천과 나무를 비롯한 온 우주가 화답하는 경건한 기도의 세계이다. 여기에서 조명희가 꿈꾸는 원초적 순수세계는 우주만물이 조화되고 조용하는 일체적 공간, 성스러운 곳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적 자아의 내면에 잠재한 원형적 대상이며 모든 실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신화적 시간 속에 있는 우주의 질서’³⁰⁾이다. 한편 모성으로서의 어머니는 대지와 동일시된다.

가을이 되었대 마을의 동무여
저 너른 들로 향하야 나가자
논들길을 발바가며 노래부르세
모든 이삭들은
다복다복 고개를 숙이여
‘쌍의 어머니여!
우리는 다시 그대에게로 도라가노라’ 한다
동무여! 고개 숙여라 기도하자
저 모든 이삭들과 한 가지..... - 「成熟의 祝福」 전문 -

영원한 모성으로서의 어머니는 생명의 근원인 땅과 동일시된다. 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인 땅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고개 숙여 경건하게 기도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생명의 근원, 어머니로서의 대지에 대한 시인의 태도는 대지에 대한 찬사로 나타나기도 한다.³¹⁾

아기, 아침, 봄, 비가 갠 강변 등은 결국 원초적 순수의 상태로써 때묻지

30) 백운복, 「조명희의 시 연구」, 『시의 이론과 비평』, 태학사, 1997, p.196.

31) ‘山과 山이며 들과 들이며/습과 습이며 내와 내며/바다와 쏘한 바다/아아 이 壯麗한 大地를/나는 무엇으로 讚辭를 댈지랴?’(「生命의 수레」 일부)

않은 태초 또는 처음이라는 의미에서 선택된 이미지들이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모성으로서의 어머니는 이 세계를 주재하는 우주, 신의 위상을 가지고 만물의 생명의 바탕인 대지의 이미지와 결부된다. 즉 그가 말한 새나라는 인간이 개입되기 이전의 상태, 절대선의 세계로서 공간적으로는 무한한 포용력을 가진 대지, 시간적으로는 아침과 봄이라는 구체성을 가지며, 거기에 새 생명으로서의 아기가 존재하는 세계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세계에서 상처받은 자아는 순수가 확보된 시·공간, 원초적 순수세계에서 엄마와 공존하는 세계를 꿈꾼다.

내가 이 잔디밭 위에 뛰노닐 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보여주실 수 읊슬가

어린 아기가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 어리광함 갖치
내가 이 잔디밭 위에 짓둥그를 적에
우리 어머니가 이 모양을 참으로 보여주실 수 읊슬가

밋칠듯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엄마! 엄마!’ 소리를 내었더니
쌍이 ‘우애!’하고 한울이 ‘우애!’ 하음에
어나것이 나의 어머니인지 알 수 읊서라. - 「봄잔디밭위에」 전문 -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이 작품은 이 시기 조명희의 정신적 배경이 함축된 그의 대표작이다. ‘어머니’라 부르는 성장한 시적 자아는 위선으로 가득찬 절대악의 세계에서 절대 순수세계를 꿈꾼다. 봄은 아직 때 묻지 않은 원초적 순수세계의 표상이며, 평온한 잔디밭은 무한한 포용력을 가진 생명으로서의 대지일 것이다. 거기에 동화된 순수세계의 표상인 아기, ‘엄마’라

부르는 먼 옛날의 자신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희망 사항일 뿐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부드럽게 위무해 줄 어머니의 젖가슴도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도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다. ‘미칠 듯한 마음’은 곧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수반되는 좌절과 절망에 대한 격정적 반응이다. 엄마를 찾는 소리는 온 사방에서 메아리로만 들릴 뿐 더 이상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다른 논자들이 본 것처럼³²⁾ 상호 응답이나 교감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과 이상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고 자기가 꿈꾸던 절대선의 세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는 슬픔과 절망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는 조명희의 이원적 현실인식과, 두 대립항의 거리, 중간존재로서의 현실적 자아, 거기에서 귀결되는 좌절과 절망 등이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현실과 이상의 엄청난 간격을 인식하고 좌절을 경험하였을 때 시적 자아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자.

3. 존재의 방식과 방어기제

조명희의 시에서 인간세계인 절대악의 개념에 대립항으로 제시된 것은 절대선의 세계로 그것은 원초적 순수세계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대악, 절대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 삶은 절대선과 절대악 사이에서 길항하는 실체이므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절대선이나 절대악은 단지 관념상에 설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선과 절대악의 대립항은 간격이 클 수밖에 없고, 더구나 그것

32) 민병기는 이를 어머니의 응답으로 보았고, 김재홍은 생명적 교감과 환희로 보았다.

한편 백운복은 이를 어머니에 대한 상실의식으로 보았다. 민병기, 『조명희』, 새미, p.142. 김재홍, 『한국현대시인연구(2)』, 일지사, 2007. p.53. 백운복, 『시의 이론과 비평』, 태학사, 1997, p.196.

이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그 극복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적·윤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현실적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동무여 손 잡아다고

네 가슴과 내 가슴에 다리를 놓차.

이것은 내 靈魂의 搖籃의 꿈자리. - 「내 靈魂의 한쪽 紀行」 일부 -

그가 세계를 향하여 손을 뻗어 화해의 태도를 취하였음에도 세계는 화답하지 않았고, 결국 그 결과는 경아(驚訝)와 공포(恐怖)로 인식된다.³³⁾ 두 대립항은 양 극단에 존재하므로 원천적으로 화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은 세계와의 진정한 화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경아와 공포라는 절대악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절대악의 세계는 이미 화해하고 공존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좌절과 패배 이후의 자신의 정신적 상황만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아아 나는 어대로 갈가 나는 어대로 가

現實이란 잿덤이(灰堆)를 되되고 서서

虛無한 奈落에 魂을 굴니여

(중략)

아아 사람들아

여기는 神도 업고 惡魔도 업슴

- 「血面鳴音」 일부 -

두 대립항 사이에 화자가 서 있는 곳은 ‘신도 없고 악마도 없는’ 곳이며,

33) ‘손잡던 동무는 도라서 가고/세상은 찬 바람이 휘모라칠 제/그제 내 靈은 얼마나
써러 울었스랴/처음에는 驚訝 그 다음에는 恐怖’ (「내 靈魂의 한쪽 紀行」 일부)

그리하여 그는 절망 속에서 인간의 淨土는 영영 없는지, 중생의 지옥은 영원히 계속되는지 신에게 묻는다.³⁴⁾ 이것은 즉 두 대립항 사이에서는 현실적이고 실재적인 인간의 삶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봄잔디밭위에」에서 화자가 절대선의 세계, 원초적 순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머니마저 화답하지 않으므로 ‘미칠 듯한 마음을 견디지 못 하’여 절망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자아의 최종적인 좌절과 패배를 의미한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향하는 것이 현실적 인간의 삶이라고 한다면 조명희의 세계관 속에서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세계는 이미 최극단의 절대악으로 설정되어 기대치가 없으므로 수정하고 개선할 대상이 아니고, 절대선의 순수세계는 응답하지 않고 좌절과 패배를 안겨주므로 자아의 현재적 삶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명희의 시에 등장하는 자폐적 공간과 ‘불비’로 상징되는 세계파멸의 근거를 이해하게 된다. 극단적인 두 대립항 사이에서 좌절과 패배를 인식할 때 중간매개체인 자아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 중 하나는 자폐의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공격의 방식이다.³⁵⁾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한다 하여도,
참으로 나는 원치를 아니 하오,
다만 침묵을 가지고 오는 님만이
어서 나를 찾아 오소서.

34) ‘人間の 淨土가 영영 업스오릿가?/衆生의 地獄이 영영이오릿가?’ (『賣肉店에서』 일부)

35) 욕구불만의 비조정적 결과로서 생기는 현상에는 퇴행·억압·투사·동일시·승화·합리화·공격·퇴행·자폐성 등이 있다. 장병립, 『사회심리학』, 박영사, 1984, p.136.

그리하여 우리의 세계는 침묵으로 잠급시다
다만 아픈 마음만이 침묵 가운데 귀 기울이며.....

- 「온 저자 사람이」 일부 -

어둠의 검! 어둠의 검!
그대는 이 철없는 세상의 말과 빛과 행복을 다 몰아가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아픈 침묵으로만 잠가 주소서
다만 거짓없는 령혼들의 소리 없는 통곡만이 땅 위에 사무치도록.....
- 「어둠의 검에게 바치는 序曲」 일부

심리학에서 자폐(Autism)는 외부세계에서 떨어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으로서, ‘욕구불만의 비조정적 결과에 대하여 외부세계와 단절하여 외면하고, 역사적·사회적 현실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욕구와 정서로 사고를 채우는 것’³⁶⁾이다. 그가 폐쇄적 공간에서 침묵의 세계를 회구하는 것은 위협적인 현실에 눈을 감음으로써 자신을 방어하려는 가장 원시적인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인 것이다. 시적 자아는 부정적 인식에 근거한 온 세상 사람과 단절되어 침묵으로 문을 잠가서 세계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단절시킴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적극적 방어기제로 공격(Aggression)³⁷⁾을 선택한다.

주여! 비노니 이 쌓에
비를 주소서 불비를 주소서!
타는 불속에서나
純實의 썩을 차자불가

36) 장병립, 앞의 책, p.137. 참조.

37) 이는 욕구충족을 저지하는 대상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공격을 가하여 자기의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병립, 앞의 책, p.137.

썩은 잿덤이 위에서나
사랑의 씨를 차자볼가

- 「불비를 주소서」 일부 -

오오 이 더러운 몸을 엇지 하여야 조호라
이 더러운 피를 엇다가 흘녀야 조호라

主여, 그대가 만일 영영 버릴 물건일진대
차라리 벼락의 榮光을 주겠나잇가
벼락의 榮光을!

- 「無題」 일부 -

시적 자아는 절대악의 인간세계가 순수세계, 순실의 세계로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세계를 불비와 벼락으로 공격하여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꿈꾼다. 모든 것이 불탄 후,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순실과 사랑이 있는 순수세계가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무제」에서는 그 공격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자학성³⁸⁾까지 보여준다. 그는 자신도 이미 ‘더러운 피’를 가진 속악한 세계의 일부이므로 ‘벼락의 영광’을 요구하는 것이다. 벼락 자체는 불운이고 고통이지만 그 위에서 새로운 순수 탄생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그것은 영광이라는 역설이 성립한다.

이처럼 조명희가 꿈꾸는 이상향, 원초적 순수세계는 현실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도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양 극단에 설정된 대립항 사이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패만이 가능할 뿐, 어떤 타협도 가능하지 않으므로 실제적 삶은 존재할 수 없다. 그 근본적 원인은 절대선과 절대악이라는 두 대립항이 식민지배 하의 살아 있는 사·공간의 구체적 현실에서 추출된 개념이 아니라 민족도 국가도 백성도 존재하지 않는 인류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관념에 근거하고 있었기

38) 자학성은 공격의 방어기제 중 그 대상을 자신에게로 향하는 내향적 공격현상이다.

때문이다. ‘그의 시에는 수사학만 있고 그것을 받쳐주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³⁹⁾는 진술은 바로 이를 지적한 것이다.

그의 시는 현실과 괴리된 절대악과 절대선이라는 양 극단의 세계를 축으로 삼은 것이었으므로 막상 그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 그것을 시로 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문학이 시에서 소설로 옮겨가고 망명 후에 소설과 함께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이와 같은 그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구체적 현실은 양 극단 사이의 중간매체로 존재할 것인데, 어느 한 쪽의 완전한 승패만이 전제된 두 대립항 사이에 중간적 존재로 길항하는 현재적 삶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입각한 현재적 삶은 시세계에서는 불가능하였고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설 장르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장르 선택의 조건에 있어서 사회의 방향성의 지평에 따라 시나 소설이 선택된다는 논리⁴⁰⁾는 적어도 조명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장르 선택의 조건은 사회적·역사적 전망에서라기보다는 개인이 추구한 세계관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의 시작품이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을 형상화하였을 때 비로소 품격을 갖추게 되’⁴¹⁾어, 「봄잔디밭위에」나 「夏夜曲」 등의 작품이 가능하였다는 것은 그의 시세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 즉 절대선과 절대악의 사이에 실제적 삶이 불가능하므로 그의 시세계는 두 대립항 사이의 관념적 삶을 노래할 때 유용하였던 것이며 사실주의라는

39) 박혜경, 「조명희론」, 홍기삼·김시태 편, 『해금문학론』, 미리내, 1991, p.352.

40) 김윤식, 「1920년대 시 장르 선택의 조건」, 『한국현대시론비판』, 일지사, 1976, p.237.

41) 오성호, 「조명희 시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논문집』 제15집, 순천대학교, 1996, p.157.

실제적 삶을 반영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망명 후에 현장성이 강한 「깃뿔힌 고려」, 「10월의 노래」 등은 대개 산문투의 장시로서 서사적 요소를 담고 있고, 비교적 짧은 시들은 선전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서정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던 것이다.

그의 시에 나타난 이러한 세계관에서 그가 문득, 가족도 모르게 소련으로 망명한 것이 이해될 수 있다. 민족보다 계급투쟁을 상위개념으로 두고 민족의 계급투쟁은 세계 계급투쟁의 한 과정으로 생각한 것, 식민지하의 민족현실이라는 구체적 삶과 현재적 진실보다는 보편적이고 관념적인, 범인류의 윤리와 도덕에 세계관의 기준을 두었던 것, 인간세계를 절대악으로 보고 절대선의 세계로서 원초적 순수세계를 꿈꾸었던 것 등은 결과적으로 그의 망명의 정신적 배경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그가 꿈꾸는 세계는 기존 세계의 해체로서만 가능한 것이었고, 그것은 곧 현재적 삶의 전면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전혀 새로운 시간과 공간, 구질서를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혁명국 소련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는 좌절과 절망 속의 시적 자아가 절대악을 해체하고 절대선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성스러운 대지, 아침이라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곳, 아기와 어머니가 응답하여 조용하는 곳으로서 그가 꿈꾸던 원초적 순수의 세계, 새나라일 수 있었던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조명희의 초기 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문학과 생애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조명희의 초기 시는 20년대 시인들에게 공통적인 것처럼, 식민지배하의 민족이 처한 구체적 현실이 아니라 막연한

상실감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구체적 현실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응해 이상향으로 제시된 ‘새나라’도 관념적 구호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인 현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였다.

조명희는 이 세계를 선과 악이라는 이원적으로 파악하고 위선적 인간이 존재하는 세상을 악의 세계로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그 부정의 근거는 식민지 피지배 민족의 구체적 시·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혐오, 인간 세상에 대한 부정이라는 보편적·인도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의 역사의식이나 현실의식이 투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나라’라는 관념적 구호는 원초적인 절대 순수세계로 좀 더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인간혐오, 인간 세계에 대한 현실부정을 극복할 상대적 개념은 절대선의 세계로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은 태초의 세계를 의미하며 아기, 아침, 눈 등의 이미지로 구현된다. 아기와 함께 영원한 모성으로서의 어머니는 무한한 생명력을 포용하는 대지와 동일시된다. 즉 그가 추구하는 순수세계는 인간이 개입되기 이전의 절대선의 세계로서 공간적으로는 무한한 포용력을 가진 대지, 시간적으로는 아침과 봄이라는 구체성을 가지며, 거기에 새 생명으로서의 아기가 존재하는 세계였다.

그런데 절대선과 절대악이라는 두 대립항은 양 극단에 존재하므로 화해는 불가능하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길항하는 것이 본질인 현재적 삶은 거기에 존재할 수 없다. 절대악의 세계는 더 이상의 기대치가 없고, 절대선의 세계 또한 좌절과 패배를 안겨줄 때 두 대립항 사이의 자이는 방어기제로서 자폐와 공격을 택한다. 자이는 부정적 세계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킴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한편, 적극적 방어기제로 공격을 선택한다. 시적 자이는 절대악의 인간세계가 순수세계, 순실의 세계로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세계를 불바·벼락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파괴함으로써

써 새로운 세계를 꿈꾼다.

그의 시세계는 절대악과 절대선이라는 양 극단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므로 구체적 식민지 현실을 담기는 어려웠다. 양 극단 사이에는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패만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서 길항하는 것이 본질인 현실적 삶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얼리즘에 입각해 현재적 삶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설 장르가 필요하였다.

이런 정신 배경 하에서 그의 돌연한 소련 망명도 가능하였다. 그가 꿈꾸는 세계는 기존 세계의 해체로서만 가능한 것이었고, 그것은 곧 현재적 삶의 전면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전혀 새로운 시간과 공간, 구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혁명국 소련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곳은 성스러운 대지, 아침, 아기와 어머니가 응답하여 조응하는 곳으로서 그가 꿈꾸던 원초적 순수의 세계, 새나라였기 때문이다.

망명 후의 그의 삶이 과연 그가 꿈꾸던 절대 순수의 세계였는지도 궁금하지만 자신이 꿈에도 갈망하던 그 세계에서 간첩 혐의로 총살된 것은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개벽』

『조선지광』

조명희, 『봄잔디밭위에』, 춘추각, 1924.

조명희 문학유산위원회, 『포석 조명희 선집』, 쓰런과학원 동방도서출판사, 1959.

동양일보 출판국, 『포석 조명희 전집』, 1995.

우정권 편, 『조명희와 선봉』, 역락, 2005.

김낙현, 「조명희 시 연구 -구소련에서 발표한 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36집, 우리문화회, 2012, pp.147-181.

김성수, 「소련에서의 조명희」, 정덕준 편, 『조명희』, 새미, 1999.

김윤식, 「1920년대 시 장르 선택의 조건」, 『한국현대시론비판』, 일지사, 1976.

김은철, 「김소월과 이상화의 비교연구」, 『비교한국학』 제3집, 국제비교한국학회, 1997, pp.173-191.

_____, 『한국 근대시 연구』, 국학자료원, 2000.

김재홍, 「조명희, 프로문학의 선구」, 『한국현대시인연구(2)』, 일지사, 2007.

노상래, 「조명희 연구 I」, 『어문학』 제53집, 한국어문학회, 1992, pp.187-208.

민병기, 「망명 작가 조명희론」, 정덕준 편, 『조명희』, 새미, 1999.

박종원 · 류만, 『조선문학개관』, 사회과학원출판사, 1986.

박혜경, 「조명희론」, 홍기삼 · 김시태 편, 『해금문학론』, 미리내, 1991.

백운복, 「조명희의 시 연구」, 『시의 이론과 비평』, 태학사, 1997.

오성호, 「조명희 시에 관한 연구 -장르 전환 과정을 중심으로-」, 『순천대학교논문집』 제15집, 순천대학교, 1996, pp.147-162.

오윤희, 「조명희의 『봄잔디밭위에』에 나타난 자연관과 생명 의식」, 『문학과 환경』 제16집 1호, 문학과 환경학회, 2017, pp.123-157.

우찬제, 「낭만적 상실과 현실적 반항의 시학」, 『민족과 문학』 창간호, 민족과 문학사, 1989, 겨울.

이강옥, 「조명희의 작품 세계와 그 변모 과정」, 김윤식 · 정호웅 편, 『한국 근대리얼리즘 작가 연구』, 문학과지성사, 1988.

이명재, 『조명희』, 한길사, 2008.

- 이정숙, 「조명희의 삶과 문학, 낭만성과 혁명성」, 『국제한인문학연구』 제4집, 국제한인 문학회, 2007, pp.167-187.
- 이화진, 「조명희의 ‘낙동강’과 그 사상적 기반」, 『국제어문』 제57집, 국제어문학회, 2013, pp.253-277.
- 장병림, 『사회심리학』, 박영사, 1984.
- 정덕준, 「포석 조명희의 생애와 문학」, 『조명희』, 새미, 1999.
- 홍기삼·김시대 편, 『해금문학론』, 미리내, 1991.

Abstract

A Study on Jo Myung-Hee's poetry

Kim, Eun-cheol

The early poems of Jo Myung-Hee expressed feelings of losses, resentments and sorrows based on the nonconcrete idea. Therefore, the New World (SaeNaRa) that he suggested lacked real concreteness.

He stated that human being & human society is absolute evil, and therefore dreamt of a society of absolute goodness, a pure world of no human. The images of the pure world were expressed as the baby, the morning, the spring, the ground, and the mother as eternal motherhood.

Also, the two antagonistic items were not based on the realities of colony but based on the abstract idea. As the absolute evil is not the subject of modification, and the absolute goodness, which he desired, rejects harmony, the poetic ego confronted frustration and despair. It means that the two antagonistic items—absolute goodness and absolute evil cannot actually co-exist since they are found on abstract idea.

As a result, the poetic ego selected autism and positive aggression as a self-defense mechanism. One is a method of passive self-protection and the other a positive self-protection. By the positive aggression of fire-rain and thunderbolt, the world of absolute evil would be destroyed integrally, and the New World of absolute goodness would be possible.

There is no truth to his poetic world, because the real life was not possible between the two concepts. *Ed-highlight: Consider rephrasing for clarity*

After he felt the real substance of colony, he had to choose the novel genre to write the real life. His exile to Soviet Union was possible on this background. The Russian Revolution that destroyed the old system, would be the New World. It was the pure and absolute goodness world

which he dreamed.

Key word: Jo Myung-Hee, New World (SaeNaRa), absolute evil, absolute goodness, autism, aggression, exile

김은철

소속 :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eckim@sangji.ac.kr

이 논문은 2019년 10월 28일 투고되어
2019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9년 12월 12일 게재 확정됨.